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현황, 태도 및 인식 연구: 초·중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김경석 **

경기대학교

이현주

경기대학교

Kim, Kyungsuk & Lee, Hyunjoo. (2014). A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about the EBSe After-school Program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Modern English Education*, 15(3), 215-24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the EBS English After-school Program and their attitudes toward it. To this end, 392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42 elementary schools and 78 middle school students from 14 middle schools participated in the survey research designed to explore the students' motivations and satisfactions,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reported changes after taking the program. First of all, the results showed that elementary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take the EBSe program because of their parents' and teacher's recommendations, while the middle school students took the program through peer discussions. Both groups were satisfied with the EBSe After-school Program and reported their English abilities, including speaking and writing skills, had been improved after taking the after-school classes. Their general attitude toward English language learning had become positive. Finally, neither group of the students much used the program at home. These were not resulted from the matter of technical support to use it. Rather, they preferred to have more interesting activities they could do by themselves at home.

[after-school English program/self-directed learning/blended learning/
방과후영어프로그램/자기주도적학습/블렌디드학습]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과제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김경석, 교신저자: 이현주

I. 서론

‘EBSe 방과후 영어 교실’은 2011년 여름 방학을 시작으로 2학기부터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당시 정부는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 과정 개편을 통해 초등학교의 영어 수업 시수를 확대하고 중·고등학교까지 말하기 및 쓰기 교육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표명하였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 1. 29.). 또한 영어 친화적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영어 도서관, 영어전용교실, 영어체험센터 구축과 함께 정규 수업 외 영어프로그램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정규 수업 외 영어 프로그램의 확대는 계층, 도농 간의 영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방과후 학교에서의 교육과 더불어 방송,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 학습 환경 제공 등을 포함하였다.

EBSe 방과후 영어 교실은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 수업에서 어려웠던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수업을 시도하였고, 이를 위한 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영어 학습 및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온·오프 블렌디드 학습 체제를 구성하여 ‘학교 수업-방과후 학습-가정연계’로 이어지는 자율적 학습 모형을 구축하여 영어 학습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웹기반의 평가, 말하기/쓰기 강화를 위한 연습 프로그램 등을 온라인상에서 제공하여 학생들의 상시적인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수자를 위해서는 영어 학습을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 형태인 ©클래스를 제공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수업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공교육의 일환으로 EBSe 방과후 영어 교실을 운영하여 초·중등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맞추고 학생들이 주도하는 영어 학습 내용을 구성하여 사교육을 절감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도에서 출발한 EBSe 방과후 영어 교실이 실질적으로 초·중등학생들 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어떤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초·중등학생들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질문은 아래와 같다.

- 1) 초·중등학생들의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참여 계기 및 만족도는 어떠한가?
- 2)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초·중등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는가?
- 3) 초·중등학생들의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참여 이후 영어 학습 및 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개발

정부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지역, 계층간의 교육 격차를 완화 시키고자 하였으며(김인숙, 변종임, 조순옥, 2010; 김홍원, 구자익, 김수동, 조덕주, 김연석, 2007; 정혜경, 2012; 홍후조, 이승미, 민부자, 2005), 특히 실용영어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012; 윤유진, 김홍원, 김정렬, 홍석준, 최윤진, 2008). 그러나, 이러한 영어 방과후 수업은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교재의 부재로 현장의 교사 및 학생 모두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김지향, 2008; 최윤정 2009).

인지하고 있듯이, 현재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은 많은 부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고 가정마다 그 비용적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011a, 2012; 김정민, 김혜민, 최은영, 채희중, 2014; 한국교육방송공사, 2011). 2011년 5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2011a)는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용영어 중심의 정규 교육 과정 구성과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하는 것이다. 그 주된 내용으로 초등 학교 영어 수업 시수를 3·4학년은 주 2시간, 5·6학년은 주 3시간으로 각각 1시간씩 늘리기로 하였고, 중학교에서는 수준별 영어수업과 주 1회 회화수업 등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 수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같은 해 8월 교육 과학기술부(2011b)는 보도 자료를 통해 EBSe를 활용한 방과후 영어 교육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맞추어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무학년 통합형 수준별 교재를 개발해 모든 학교에 보급해 공교육의 틀 안에서 영어 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꾸준히 증가하는 영어 사교육 수요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목적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첫째,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실용영어 교육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수-학습 교재와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초·중등학교 현장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방과후 영어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둘째,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중심의 학교 영어교육의 변화를 지원하여 영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 수업의 공교육에서 시간적, 인력적 한계로 모두 다루어지기 어려웠던 의사소통 중심 영어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의미있는 활동 중심의 학습을 유도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의 정규 영어 교육과정에서 아직까지 취약한 부분인 학생들의 말하기/쓰기가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학습자 수준별 말하기/쓰기 능력 향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면(한국교육 방송 공사, 2011) 교사의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실 수업에서의 학습자의 동기유발, 유의미한 학습 지원을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 지원, ©클래스 제공 등을 중요한 사항으로 들 수 있다. EBSe 방과후 프로그램은 초·중등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실 수업과 유기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맥락의 교재기반 자기주도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며, 말하기/쓰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 9개 학년의 체계적인 단계별 성취 학습량을 제공하고 있다.

EBSe 방과후 프로그램의 초등 과정은 다음 4가지 원칙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첫째, 정규교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1·2학년 과정에서 정규 교과에 없는 파닉스를 익히게 함으로써 3학년 교육과정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초·중등 연계를 염두에 두고 초등학생들이 중등 교육 과정을 학습할 때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 연계에 주안점을 두었다. 넷째, 언어 연습과 언어 학습 활동을 적절히 분배하여 정규 수업과정에서 미비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등 과정은 전체적으로 실용 영어 습득에 콘텐츠 개발 방향의 초점을 두고 정규교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접적인 문법 설명보다는 듣기, 읽기, 쓰기 등의 활동을 통해 영어 중심의 내용과 활동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말하기/쓰기 연습 코너’를 제작하여 활동 중심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초·중등 학생들의 현황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학생들의 참여 이후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비하다. 최근 일반적인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몇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영어 사용에 대한 빈도와 학습 시간을 확대하여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통한 원어민 교사 활용에 대한 것이다. 이영주(2012)는 4년간의 국가 수준 영어 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우수학력 학생이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송희심(2012)은 방과후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을 통한 영어 사용 시간 확대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정혜옥과 박부남(2014)은 원어민 교사와 내국인을 활용한 초등학교 방과후 수준별 영어 학습의 효과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과 같이 전국적인 규모에서 온·오프 라인을 병행하고 수준별 자기주도적 학습을 특징으로 하는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EBSe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

한 초·중등 학습자 참여 현황과 태도 및 인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2.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특징 및 이론적 토대

1) 수준별 학습 및 무학년 통합의 자기주도적 학습

Knowles(1975)는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을 학습에 대한 주체로서 학생이 학습에 대한 인지, 동기,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여 교육적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즉,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과 행동 등을 조절하여 교육의 내용을 스스로 계획, 실천, 평가하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능력 등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학습의 과정을 이해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다(Holec, 1981).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인 자기 평가는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학습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학습활동이다. O'Malley와 Pierce(1996)에 의하면 자기평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학습에 대한 계획과 방향, 동기 등을 촉진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언어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정렬 외 12인(2006)은 웹기반의 학습은 자기주도적 교육적 환경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실제적인 교재(authentic materials)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외국어 교육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사용은 현실감 있는 교육적 자원이 되며, 개인의 학습적 요구에 맞는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에서 면대면 학습보다 자유로운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웹기반 학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상호작용과 수준별 학습, 학습 내용의 차별화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수준별 교수학습을 위한 교재의 개발 및 운영과 함께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능력 수준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평가(self-assessment)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평가의 결과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레벨 및 추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자신의 취약점을 보충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는 영어의 4기능 중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향후 말하기 기능에 대한 평가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시작 전에 실시하는 자가 진단 평가와 함께 단원별 학습을 마치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단원 평가는 방과후 학습 연계 평가, 말하기/쓰기 연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학습자가 단계적으로 자신의 수준을 고찰하면서 수업할 수 있도록 단계별 형성 평가

역시 제공되고 있다.

또한,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수준별 교재를 통해 무학년 통합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3개 학년군으로 나누어 총 12단계의 수준별 교재를 개발하였다. 1-2학년군은 파닉스 학습을 중심으로 통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학년은 무학년 수준별로 운영을 하도록 고안되었다. 이러한 수준별 교재의 개발은 일정하게 정해진 과정을 단계별로 이수해야 하는 정형화된 교육의 틀을 깨고, 학생들의 수준, 학습 유형과 내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여러 가지 내용을 선별적으로 ©클래스를 통해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구성 요소는 학습자 스스로 취약영역을 분석하여 향후 학습에 대한 방향을 계획하고 수립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준다.

2) 학습자 중심의 블렌디드 학습(Blended Learning)

면대면 학습에서 학생 중심의 교수 모형이 부각되면서 학습자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사소통능력 증진, 실용적인 영어 사용 능력 향상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학습자의 직접적인 외국어 능력의 향상과 함께 학습자의 사고력, 창의성 증진과 연관이 있다. 웹을 기반으로 하는 블렌디드 학습은 교수자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간의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제공하며 기존의 면대면 수업보다 시간적인 제약을 덜 받기에 오히려 더욱 깊이 있는 논의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Belz, 2002; Thorne & Payne, 2005).

온·오프라인을 병합하는 블렌디드 학습은 기존의 면대면 학습과 온라인 기반 학습을 통합하여 교수 학습 방법의 다양화, 학습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 다양한 자료 활용 등을 통해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Carman(2002)은 블렌디드 학습이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학습 내용 구성과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기존의 면대면 학습보다 시간과 공간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블렌디드 학습은 학습자가 정보를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으며 최신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이끌 수 있다.

Catchen(2012)은 블렌디드 학습은 전통적 면대면 학습과의 병행을 통해 기존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의 한계를 넘어 학습 방법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다양한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블렌디드 학습은 웹기반을 활용한 다양한 피드백을 저장 및 공유할 수 있으며 디지털과 시각적인 자료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수준별 교재의 개발뿐만 아니라 학습 및 과제 관리 시스템에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학습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과후 수업과 자율학습 연계 방식은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의

한 모형으로 방과후 수업 이후 가정에서의 자율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그 다음의 방과후 수업을 통해 학습된 내용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이러한 형태의 수업을 위한 강의 동영상(클립형 강의 동영상,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말하기/쓰기 강화를 위한 연습 프로그램 등도 제공된다. 또한, 담당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지도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과제 관리 및 개별적인 학습 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EBSe 방과후 영어 교실은 온·오프 라인 병합의 블렌디드 학습을 통해 영어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이루고, 먼대면 학습의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 학습자의 필요를 상시적 충족시킬 수 있는 영어 학습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연구 참여 학생의 기본정보

표 1
연구 참여 학생의 기본 정보

구분	전체		초등		중등		
	사례수(명)	구성비율(%)	사례수(명)	구성비율(%)	사례수(명)	구성비율(%)	
서울	3	0.6	0	0.0	3	3.8	
부산	8	1.7	1	0.3	7	9.0	
대전	3	0.6	3	0.8	0	0.0	
인천	1	0.2	1	0.3	0	0.0	
경기	54	11.5	15	3.8	39	50.0	
경북	105	22.3	105	26.8	0	0.0	
지역	경남	22	4.7	20	5.1	2	2.6
	충북	61	13.0	54	13.8	7	9.0
	충남	20	4.3	20	5.1	0	0.0
	전북	47	10.0	29	7.4	18	23.1
	전남	23	4.9	22	5.6	1	1.3
	강원	123	26.2	122	31.1	1	1.3
	Total	470	100	392	100	78	100.0
학년	1학년	23	4.9	14	3.6	10	12.8
	2학년	47	10.0	37	9.4	10	12.8

	3학년	115	24.5	57	14.5	28	74.4
	4학년	92	19.6	92	23.5	-	-
	5학년	100	21.3	100	25.5	-	-
	6학년	92	19.6	92	23.5	-	-
	Total	470	100	392	100	78	100.0
성별	남	221	47.2	185	47.2	37	47.5
	여	248	52.8	207	52.8	41	52.6
	Total	470	100	392	100	78	100.0
학교급	초등학생	392	83.4	392	100	-	-
	중학생	78	16.6	-	-	78	100.0
	Total	470	100	392	100	78	100.0

표 1은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지역별, 학년별, 성별, 학교급별 배치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학교급별로 초등학생 83.4%와 중학생 16.6%로 구성되어 있어 중학생의 참여가 초등학생에 비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경북이 각각 26.2%, 22.3%로 가장 높고, 충북 13.0%, 경기 11.5%, 전북 10.0%, 전남 4.9%, 경남 4.7%, 부산 1.7%, 서울 0.6%, 대전 0.6% 그리고 인천 0.2%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분포에서 대도시 학교 학생들의 설문 참여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5학년이 25.5%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4학년 23.5%, 6학년 23.5%, 3학년 14.5%, 2학년 9.4%, 1학년 3.6%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 3학년 74.4%, 1학년 12.8%, 2학년 12.8%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52.8%, 남학생이 47.2%로 구성되어 있다.

2) 자료 수집 및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중등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에 참여 학교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발된 설문지¹는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중등학교에 우편으로 배송되어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EBSe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해당 학교에 무작위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이나 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았다. 설문지와 함께 연구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였으며, 해당 학교별 10부 정도의 학생용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교는 초등 42개, 중등 14개, 총 56개 학교가 참

¹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개발된 설문지는 김영미, 황정희와 전수경(2012)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여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초등학생용 392부, 중학생용 78부, 총 470부이다. 설문 응답지는 전체와 초등, 중등 학급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설문지는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정보, 현재와 과거의 영어 학습 현황, EBSe 방과후 교실 참여 동기, 자가 실력 평가, 프로그램 장점 및 만족도, 자기주도적 학습, 실력 향상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과 자세한 문항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설문 분석 항목	설문 번호 및 내용
일반적인 영어 학습 활동	1. 현재의 학습 현황(다중응답)
	2. 과거의 학습 현황(다중응답)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참여 동기	3. 프로그램 참여 동기
자신의 영어 실력	4. 자신의 영어 실력 평가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5. 프로그램 만족도
	6. 프로그램의 장점(다중응답)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7. 자기주도학습 횟수
	8. 자기주도학습에 참여 하지 않는 이유
	9. 영어에 대한 태도의 변화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참여 이후의 변화 및 지속 여부	10. 영어 성적 향상 여부
	11. 계속 참여 여부
	12. 영어 쓰기 실력향상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개선 사항	13. 영어 말하기 실력향상
	14. 프로그램 개선 방안
	총 14문항

IV. 연구 결과

1.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교육 및 자기 평가 영어실력

1)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영어 학습활동

학생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영어 학습활동을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방과후 영어교실 이외 영어 학습을 위해 42.3%의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고, 32.6%가 학습지를 하고 있으며, 19.4%가 개인 및 그룹 과외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이 37.8%, 학습지 36.4%, 개인 및 그룹

과외가 19.6%의 순서로 나타났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원이 61.1%, 개인 및 그룹 과외가 18.5%, 학습지를 하는 학생은 16.7%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기타 과외 활동으로는 영어 심화 보충반, 화상영어, 전화영어, 인터넷 강의, 영어 캠프, 영어 독서 등이 있었고, 중등에서는 인터넷 강의, 전화영어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초등은 학원과 학습지에 대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반면, 중학교 학생들은 학습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

학생이 현재 참여하는 영어 학습 활동(현재)

구분	전체		초등		중등	
	사례수(명)	구성비율(%)	사례수(명)	구성비율(%)	사례수(명)	구성비율(%)
개인 및 그룹 과외	54	19.4	44	19.6	10	18.5
학원	118	42.3	85	37.8	33	61.1
학습지	91	32.6	82	36.4	9	16.7
기타	16	5.7	14	6.2	2	3.7
Total	279	100.0	225	100	54	100.0

2) 과거에 참여했던 영어 학습활동

현재 방과후 영어 교실에 참여하기 전 과거의 영어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43.9%나 있었으며, 학원을 다녔던 학생이 26.8%, 학습지로 공부했다는 학생이 18.2%, 개인 및 그룹 과외를 했다는 학생이 9.1%로 나타났다. 또한 소수의 학생(3.0%)은 해외 방학 영어 캠프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 미만의 학생은 해외 어학연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 학생 참여 영어 학습활동을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그 학습 분포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에 참여하였던 학생이 46.7%로서 50%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중학교 학생은 26.2%로의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어 학교급에 따라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 참여도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방과후 영어 수업외에 전에 경험한 영어 학습 과외활동 중 초등학생에게 가장 빈번한 것은 학원(22.5%), 학습지(18.0%), 과외(8.5%) 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 학원(44.1%), 학습지(16.6%), 과외(10.3%)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을 수강하기보다 학원에서 영어 학습을 하는 경향을 여기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과외 활동으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및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영어 캠프를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중학생은 인터넷 강의 및 전화영어를 언급하였다.

현재와 과거에 학생들이 참여한 영어 학습활동 자료를 직접 비교해 보았을 때, 과거에 21.5%, 44.1%의 초등학생과 중학교 학생이 학원에서 영어를 학습한 반면, 현재는 그 수치가 각각 37.8%, 61.1%로 상승한 점을 알 수 있다. 학원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고, 학습지 활용 또한, 18.0%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거에 학습지를 통해 영어를 학습한 반면, 현재 학습지 활용 영어 학습은 36.4%의 수치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학생이 참여했던 영어 학습 활동(과거)

구분	전체		초등		중등	
	사례수(명)	구성비율(%)	사례수(명)	구성비율(%)	사례수(명)	구성비율(%)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308	43.9	270	46.7	38	26.2
개인 및 그룹 과외	64	9.1	49	8.5	15	10.3
학원	188	26.8	124	21.5	64	44.1
학습지	128	18.2	104	18.0	24	16.6
해외 어학연수	13	1.9	11	1.9	2	1.4
해외 방학 영어캠프	21	3.0	19	3.3	2	1.4
기타	1	0.1	1	0.2	0	0.0
Total	723	100	578	100	145	100

3) 학생 자신이 평가하는 영어실력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 실력에 대해 느끼는 정도를 보고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43.4%가 중간 수준이라고 답하였고, 32.3%가 높음 이상으로, 23.8%가 낮음 이하로 보고 하였다. 2/3에 달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실력이 무난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초등학생은 중간은 42.9%, 높음 이상은 32.6%, 낮음 이하는 24.2%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46.2%가 중간이고, 30.8%가 높음 이상, 21.8%가 낮음 이하로 보고 하여, 초등학생이 중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영어 실력이 중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았다. 즉,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 자신이 지각하는 영어실력이 함께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학생 자신이 평가하는 영어실력

구분	전체		초등		중등	
	사례수(명)	구성비율(%)	사례수(명)	구성비율(%)	사례수(명)	구성비율(%)
매우 높음	46	9.7	39	9.9	7	9.0
높음	106	22.6	89	22.7	17	21.8
중간	204	43.4	168	42.9	36	46.2
중간 아래	70	14.9	58	14.8	12	15.4
아주 낮음	42	8.9	37	9.4	5	6.4
무응답	2	0.4	1	0.3	1	1.3
Total	470	100	392	100	78	100

2.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참여 계기 및 만족도

1)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참여 계기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님이 권해서 하는 경우가 24.7%로 가장 컸으며, 영어가 좋아서 참여하는 경우가 18.9%, 학교에서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16.4%, 선생님이 권한 경우가 14.0%,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라서가 11.5%로 나타났다. 기타 3.6%는 영어실력이 부족하여 영어학습이 필요하여,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하므로 등 다양한 참여 계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초등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평균과 다르지 않게 비슷한 순서로 참여 계기를 나타내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권유가 다른 동기에 비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등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권유, 영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각각 19.2%, 학교에서 하는 것은 믿음이 간다는 이유가 15.4%, 친구들이 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이유가 14.1%, 선생님의 권유가 12.8%, 저렴한 비용 이유가 10.3%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에 비해 중등에서는 부모님의 권유가 19.2%로 25.8%의 초등에 비해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선생님의 권유 또한 동기요인으로서의 그 역할이 줄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친구들이 하니까 함께 하고자 하는 동기요인이 4.3%의 초등에서 14.1%의 중등으로 상당히 상승해 있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보다 또래집단의 영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수치상 나타낸다. 반면에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보면, 초등학생은 12.8%, 중학생은 5.1%로 응답하여 중학생들에게는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흥미도가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어가 좋아서 참여하는 경우는 초등 18.9%, 중등 19.2%로서 거의 비슷한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모님, 선생님의 외부 영향력에 좀 더 민감하고

수용적인 초등학생들의 특성에 비해, 중등학생들은 또래 친구들의 결정이나 스스로의 결정에 좀 더 의존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은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라 믿을만하다고는 생각하나 영어 학습에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는 여기지 않는 듯하다.

표 6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학생 참여 계기

	전체		초등		중등	
	사례수 (명)	구성비율 (%)	사례수 (명)	구성비율 (%)	사례수 (명)	구성비율 (%)
영어를 좋아하니까	89	18.9	74	18.9	15	19.2
부모님께서 하라고 해서	116	24.7	101	25.8	15	19.2
선생님께서 하라고 해서	66	14.0	56	14.3	10	12.8
친구들이 하니까	28	6.0	17	4.3	11	14.1
비용이 비싸지 않아서 (저렴해서)	14	3.0	6	1.5	8	10.3
학교에서 하는 것은 믿을 만 함으로	77	16.4	65	16.6	12	15.4
흥미로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므로	54	11.5	50	12.8	4	5.1
기타	17	3.6	16	4.1	1	1.3
무응답	9	1.9	7	1.8	2	2.6
Total	470	100	392	100	78	100

2)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아래의 표 7에서 보듯이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7.9%의 학생들이 만족의 반응을 보였고 불만족은 9.1%로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만족은 68.6%, 모르겠다는 21.7%, 불만족은 9.2%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중학생의 경우는 만족이 64.1%, 모르겠다는 25.6%, 불만족은 9.0%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참여 학생들의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이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 이상 되는 점은 향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7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학생 만족도

구분	전체		초등		중등	
	사례수(명)	구성비율(%)	사례수(명)	구성비율(%)	사례수(명)	구성비율(%)
만족	319	67.9	269	68.6	50	64.1
불만족	43	9.1	36	9.2	7	9.0
모르겠다	105	22.3	85	21.7	20	25.6
무응답	3	0.6	2	0.5	1	1.3
Total	470	100	392	100	78	100

3) 학생들이 느끼는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수업의 장점

학생들에게 방과후 영어 수업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을 때 학생들의 응답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25.5%의 학생이 ‘재미있다’고 응답하였고, ‘수준에 맞는 수업’이라고 답한 학생이 19.0%, ‘흥미로운 동영상 및 콘텐츠’라는 것에 17.5%, ‘말하기 학습에 도움이 됨’이 16.6%, ‘쓰기 학습에 도움이 됨’에 11.2% 순으로 답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28.0%가 ‘재미있다’고 반응하였고, ‘수준에 맞는 수업’이라는 것에 19.1%, ‘말하기 학습에 도움이 됨’이 17.0%, ‘흥미로운 동영상 및 콘텐츠’라는 것에 14.9%, ‘쓰기 학습에 도움이 됨’에 10.5%, ‘체계적인 내용’이 5.1%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중학교 학생들은 ‘흥미로운 동영상 및 콘텐츠’라는 것에 30.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내 수준에 맞는 수업’이 18.4%, ‘쓰기 학습에 도움이 됨’과 ‘말하기 학습에 도움이 됨’에 각각 14.9%, ‘재미있다’에 12.8%, ‘체계적인 내용’이라는 것에 7.1%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이 느끼는 수업의 장점에 대해 학교급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많은 초등학생들이 EBSe 방과후 프로그램이 ‘재미있다’고 의견을 낸 반면에 중학생은 초등학생의 50% 밖에 지나지 않는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중등의 상당한 수의 학생들(30.5%)이 프로그램 수업이 흥미로운 동영상 및 콘텐츠를 보여준다고 응답하였다. 비교적 많은 교육량을 소화해야 하는 중등에서 교사가 제시할 수 없는 동영상 및 다른 매체의 수업자료를 보면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을 중학생들은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큰 장점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에 비해 중학생들은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다양한 동영상 및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느끼나, 이러한 점이 바로 수업이 ‘재미있다’라고 판단하게끔 하는 중요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중등에서 비교적 더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쓰기 학습에 도움이 됨’이라고 의견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듣고 말하기 위주의 초등 활동을 벗어나 중학생들이 적극적인 문자언어 활동을 하여야 하는 이유에 기인하는 듯하다.

표 8
학생들이 느끼는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장점

구분	전체		초등		중등	
	사례수(명)	구성비율(%)	사례수(명)	구성비율(%)	사례수(명)	구성비율(%)
내 수준에 맞는 수업	161	19.0	135	19.1	26	18.4
체계적인 내용	46	5.2	36	5.1	10	7.1
흥미로운 동영상 및 콘텐츠	148	17.5	105	14.9	43	30.5
쓰기 학습에 도움이 됨	95	11.2	74	10.5	21	14.9
말하기 학습에 도움이 됨	141	16.6	120	17.0	21	14.9
재미있다	216	25.5	198	28.0	18	12.8
기타	23	2.7	22	3.1	1	0.7
무응답	18	2.1	17	2.4	1	0.7
Total	848	100	707	100	141	100

3. EBSe 방과후 교실의 자기주도학습 여부

가정에서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의 횟수를 조사하였는데 표 9에 정리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절반이 넘는 57.4%의 학생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일주일에 1-2회는 22.8%, 일주일에 3-4회는 10.9%, 일주일에 5-6회는 6.4%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의 패턴은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먼저 61.2%의 초등학생들이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고, 38.5%의 중학교 학생들이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사용 안함이 61.2%, 일주일에 1-2회 사용이 18.9%, 일주일에 3-4회 사용이 9.4%, 일주일에 5-6회 사용이 7.4%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학생들의 38.5%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42.3%가 일주일에 1-2회, 17.9%가 일주일에 3-4회, 그리고 1.3%가 일주일에 5-6회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초등과 중등의 확연한 수치 차이를 볼 때 초등학생들이 EBSe 온라인 영어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문항에서 왜 EBSe 영어 프로그램을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표 9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학생 자기주도학습 여부

구분	전체		초등		중등		
	사례수 (명)	구성비율 (%)	사례수 (명)	구성비율 (%)	사례수 (명)	구성비율 (%)	
가정에서 EBSe 영어 사용 여부	일주일에 5-6회	30	6.4	29	7.4	1	1.3
	일주일에 3-4회	51	10.9	37	9.4	14	17.9
	일주일에 1-2회	107	22.8	74	18.9	33	42.3
	거의 사용안함	270	57.4	240	61.2	30	38.5
	무응답	12	2.6	12	3.1	0	0.0
Total	470	100	392	100	78	100	
가정에서 EBSe 영어 를 사용하지 않 는 이유	집에 컴퓨터가 없다.	17	6.3	17	7.1	0	0.0
	집에 인터넷이 안된다.	13	4.8	13	5.4	0	0.0
	사이트 접속이 잘 안 된다	14	5.2	14	5.8	0	0.0
	인터넷 접속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14	5.2	14	5.8	0	0.0
	사용하기가 너무 복잡 하다	39	14.4	32	13.3	7	23.3
	재미없다	107	39.6	95	39.6	12	40.0
	기타	62	23.0	53	22.1	9	30.0
	무응답	4	1.5	2	0.8	2	6.7
	Total	270	100	240	100	30	100

집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재미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39.6%로 가장 높았고, ‘사용하기가 복잡하다’가 14.4%, ‘집에 컴퓨터가 없다’는 의견이 6.3%, ‘사이트 접속이 안 된다’라는 것이 5.2%, ‘인터넷 접속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5.2%, ‘집에 인터넷이 잘 안 된다’가 4.8%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재미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39.6%로 가장 높았고, ‘사용하기가 너무 복잡하다’가 13.3%, ‘집에 컴퓨터가 없다’는 의견이 7.1%, ‘인터넷 접속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와 ‘사이트 접속이 잘 안 된다’가 각각 5.8%로 나타났고, ‘집에서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5.4%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재미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40.0%로 가장 높았고, ‘사용하기가 복잡하다’가 23.3%, 기타 의견이 30.0%로 나타났다. 이 때 기타의견으로는 컴퓨터 고장, 컴퓨터의 속도가 느림, 컴퓨터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중등에서 ‘집에 컴퓨터가 없다’, ‘집에 인터넷이 안 된다’, ‘사이트 접속이 잘 안

된다’, ‘인터넷 접속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와 같은 이유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제공되지 않아 가정에서 EBSse 영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EBSse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인터넷에 접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EBS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후 변화 및 지속적 참여 의사 여부

EBS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영어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와, 성적의 변화, 쓰기 및 말하기 능력의 상승 여부, 그리고 향후 EBS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지를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EBS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후 변화 및 지속적 참여 의사 여부

구분	전체		초등		중등		
	사례수 (명)	구성비율 (%)	사례수 (명)	구성비율 (%)	사례수 (명)	구성비율 (%)	
마음과 태도의 변화	더욱 흥미가 생겼다	243	51.7	194	49.5	49	62.8
	변화가 없다	86	18.3	73	18.6	13	16.7
	영어가 더 싫어졌다	13	2.8	13	3.3	0	0.0
	잘 모르겠다	98	20.9	84	21.4	14	17.9
	무응답	30	6.4	28	7.1	2	2.6
Total	470	100	392	100	78	100	
영어 성적의 변화	성적이 올랐다.	247	52.6	195	49.7	52	66.7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60	12.8	54	13.8	6	7.7
	잘 모르겠다	153	32.6	134	34.2	19	24.4
	무응답	10	2.1	9	1.3	1	1.3
Total	470	100	392	100	78	100	
쓰기 능력 상승	네	279	59.4	226	57.7	53	67.9
	아니오	59	12.6	54	13.8	5	6.4
	잘 모르겠다.	126	26.8	107	27.3	19	24.4
	무응답	6	1.3	5	1.3	1	1.3
Total	470	100	392	100	78	100	

말하기 실력 상승	네	314	66.8	258	65.8	56	71.8
	아니오	48	10.2	43	11.0	5	6.4
	잘 모르겠다	102	21.7	86	21.9	16	20.5
	무응답	6	1.3	5	1.3	1	1.3
	Total	470	100	392	100	78	100
향후 프로 그램 참여 의사	네	288	61.3	238	60.7	50	64.1
	아니오	74	15.7	67	17.1	7	9.0
	잘 모르겠다	102	21.7	82	20.9	20	25.6
	무응답	6	1.3	5	1.3	1	1.3
	Total	470	100	392	100	78	100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영어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더욱 흥미가 생겼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51.7%, '변화가 없다'라는 학생이 18.3%, '잘 모르겠다'가 20.9%, '영어가 더 싫어졌다'가 2.8%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더욱 흥미가 생겼다'라고 한 학생이 49.5%, '잘 모르겠다'가 21.4%로, '변화가 없다'라는 학생이 18.6%, '영어가 더 싫어졌다'가 3.3%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등의 경우는 전체적인 결과와 초등의 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중학생들은 '더욱 흥미가 생겼다'가 62.8%, '잘 모르겠다'가 17.9%, '변화가 없다'가 16.7%라고 응답하여 중학생들의 마음과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어가 더 싫어졌다'라는 부정적인 변화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영어 성적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성적이 올랐다'가 52.6%로 가장 높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32.6%,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가 12.8%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성적이 올랐다'라는 반응이 49.7%로 제일 많았으며, 둘째로 '잘 모르겠다'가 34.2%, 그리고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가 13.8%였다. 중등에서는 '성적이 올랐다'가 66.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가 24.4%,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가 7.7%로 초등과 비슷한 패턴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영어 성적의 변화에 초등과 중등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성적이 올랐다'라는 긍정적인 성적의 변화가 66.7%로 중등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성적의 변화가 긍정적인 성적의 변화와 반비례하여 나타나 초등과 중등에서 학생들의 영어 성적 변화가 일관성 있게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문항으로서 국가영어능력평가의 도입으로 말하기/쓰기 능력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쓰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물었을 때,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이 59.4%, '잘 모르겠다'가 26.8%, 부정적인 응답이 12.6% 순이었다. 초등은 긍정적인 반응이 57.7%로 가

장 높았고, ‘잘 모르겠다’가 27.3%, 부정적인 응답이 13.8%이었다. 이에 반해, 중등은 긍정적인 쓰기 실력 향상이 67.9%로 가장 높았고, 둘째로 ‘잘 모르겠다’가 24.4%, 부정이 6.4%로 초등과 중등 모두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크게 나타났다.

말하기 실력 향상에 대한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66.8%, 잘 모르겠다’가 21.7%, 그리고 부정적 응답이 10.2%였고, 초등은 긍정이 65.8%, ‘잘 모르겠다’가 21.9%, 그리고 부정적인 응답이 11.0%였다. 중등은 긍정이 71.8%로 가장 높았고, ‘잘 모르겠다’가 20.5%, 부정이 6.4%로, 초등과 중등 모두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으로 인해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들이 쓰기 실력과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중학교 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초등학생들보다 크게 나타나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쓰기/말하기 실력을 상승시키는데 더욱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향후 계속해서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 본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61.3%로 가장 높았고, ‘잘 모르겠다’가 21.7%, 그리고 부정적인 응답이 15.7%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긍정이 60.7%, ‘잘 모르겠다’가 20.9%, 그리고 부정이 17.1%로 나타났다. 중등의 경우 또한 초등과 비슷한 패턴으로 긍정이 64.1%, ‘잘 모르겠다’가 25.6%, 부정이 9.0%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자면,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이후 이 설문지 문항을 통해 알 수 있었던 학생들의 변화, 즉 마음과 태도의 변화, 영어성적의 변화, 쓰기 실력 및 말하기 실력 향상,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 여부를 볼 때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 가지는 모든 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수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태도로의 변화 또한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학생들의 변화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모든 항목에 걸쳐 중등이 초등에 비해 더 강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5.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

설문조사의 마지막 문항으로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발전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 의견을 물어 본 후, 그 반응을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방식에 따라 구조화하여 ‘수업내용, 수업운영, 교실환경’ 세 가지 범주로 구조화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 표 12와 같이 정리되었다. 먼저 그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학생들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표현이 초등학생 82건, 중학생 2건으로 설문지에 답한 전체 학생 수에 비해 상당히 적었다. 이와 비슷한 실태 조사 연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설문지 응답을 독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문지 배포시 교사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떠맡도록 해야

한다.

표 11에 나타나 있듯이, 초등학생들이 경우에는 세 가지 범주에 대해 모두 반응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수업내용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총 82개의 반응 중에서 수업운용이 58.5%(48건)에 해당하여 가장 높았고, 수업내용에 관한 내용이 32.0%(32건), 그리고 수업환경에 대한 지적이 2.4%(2건)로 나타났다. 수업내용에 관한 의견에는 ‘게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37.5%로 가장 컸으며, ‘쓰기 연습 강화’가 12.5%, ‘다양한 활동하기’가 9.4%, ‘말하기 연습 강화’와 ‘음식 만들기 영어 수업하기’와 ‘영화를 많이 보고 싶다’가 6.3%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동영상 보기, 그림 만들기, 발음 연습, 팝송 부르기, 영어해석, 영어문제풀이, 영어연습 등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운영에 관한 내용에서 무엇보다 가장 많은 의견이 ‘재미있는 수업’에 대한 요구로서 71.1%의 학생들이 응답하였으며, ‘수준별 수업 운영’과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면 좋겠다’가 6.5%로 뒤를 이었다. 또한 자세한 설명, 수업진도 빨리 나가기, 영어로만 수업 진행, 집에서 예·복습하기, 컴퓨터 활용 수업, 수준 조절 등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반해 수업환경에 대한 발전 방안으로는 단 2건의 의견인 ‘엄격한 지도’와 ‘정숙한 분위기 조성’이 각각 50.0%로 나타났다. 정규 수업과는 달리 방과후 수업의 특성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점은 다소 산만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인하여 집중이 되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수업에 대해 선생님의 엄격한 지도와 정숙한 분위기 조성을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로 해석 되어진다.

표 11

초등학생의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발전 방안

	구체적 내용	빈도	퍼센트
수업내용	게임하기	12	37.5
	동영상 보여주기	1	3.1
	말하기 연습 강화	2	6.3
	쓰기 연습 강화	4	12.5
	그림 만들기	1	3.1
	다양한 활동하기	3	9.4
	음식 만들기	2	6.3
	발음연습 기회 강화	1	3.1
	팝송 부르기	1	3.1
	영어해석	1	3.1
	영어문제풀기	1	3.1
	영화를 많이 보기	2	6.3
	영어연습하기	1	3.1
	Total	32	100.0

수업 운영	재미있으면 좋겠다	32	71.1
	자세한 설명 해 주기	2	4.4
	수업진도 빨리 나가기	1	2.2
	수준별 수업 운영	3	6.5
	영어로만 수업했으면	2	4.4
	한국어로 수업했으면	3	6.5
	집에서 예.복습하기	1	2.2
	컴퓨터 많이 활용	2	4.4
	수준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다	1	2.2
	시험을 봤으면	1	2.2
Total	48	100.0	
교실 환경	엄격한 지도	1	50.0
	정숙한 분위기	1	50.0
	Total	2	100.0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표 12에 나타나 있듯이, 초등학생들과는 달리 수업내용(64.3%)이 수업운영(21.4%)보다 전체 반응 대비 훨씬 많았으며, 그 중 ‘동영상 보여주기’에 대한 요구가 55.6%로 가장 높았다. 수업운영에 관한 내용으로는 역시 ‘재미있는 수업’, ‘체계적인 수업’,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초등학생들이 언급했던 ‘재미있는 수업’(71.1%)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비해 중학생들의 ‘재미있으면 좋겠다’라는 수업운영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낮아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흥미로운 수업을 원하는 초등학생들의 발달상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2

중학생의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발전 방안

	구체적 내용	빈도	퍼센트
수업내용	동영상 보여주기	5	55.6
	말하기 연습 강화	1	11.1
	쓰기 연습 강화	1	11.1
	다양한 활동하기	1	11.1
	체험활동	1	11.1
Total	9	100.0	
수업 운영	재미있는 수업	1	33.3
	체계적인 수업	1	33.3
	한국어로 수업했으면	1	33.3
Total	3	100.0	
교실 환경	엄격한 지도	1	100.0
	Total	1	100.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EBSe 방과후 영어 교실에 참여하는 초·중등학습자들의 현황과 태도 및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학습자들의 인식과 시사점

첫째, 학생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영어 과외활동으로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학원과 학습지에 대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반면, 중등에서는 우세한 숫자의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현재 방과후 영어 교실에 참여하기 전 과거의 영어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초등과 중등의 학습 분포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에 참여하였던 학생의 수가 많은 반면, 중학교 학생들은 학원에서 영어 학습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현재와 과거에 학생들이 참여한 영어 학습 활동 자료를 직접 비교해 보았을 때, 학원으로서의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고 초등학생들의 학습지 활용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부모님의 권유가 다른 동기에 비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중학생들의 경우 선생님이 권한 경우, 영어를 좋아해서 참여한 경우, 친구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정하게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외부 영향력에 좀 더 민감하고 수용적인 초등학생들의 특성에 비해, 중등학생들은 또래집단이나 스스로의 결정에 좀 더 의존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학생들의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대체로 초·중등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재미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들의 경우 ‘흥미로운 동영상 및 콘텐츠’가 만족하는 제일 큰 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으로 공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에서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재미없어서’라고 응답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즉, EBSe 영어 프로그램을 학교-가정 연계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낮았다. 이것은 ©클래스의 활용도도 낮음을 반증하고 있다.

넷째,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영어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었을 때, 전체적으로 초·중등 모두 ‘더욱 흥미가 생겼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영어 성적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초·중등 모두 ‘성적이 올랐다’라고 답하였고, 국가영어능력평가 대비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말하기, 쓰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또한 초·중등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이후 학생들의 변화, 즉 마음과 태도의 변화, 영어성적의 변화, 쓰기 실력 및 말하기 실력 향상,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 여부를 볼 때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 가지는 모든 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2. 제언

EBSe 방과후 영어 교실에 참여하는 초·중등학생은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운영과 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의 결과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조금 더 흥미있는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EBSe를 활용한 학교-가정 연계의 자기주도적 학습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활동적 게임의 확대를 통해 학생들 주도의 활동참여를 증진시킬 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수업에 사용되는 게임 및 활동의 확대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영어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게임은 카드게임이나 역할극 등으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며 지겹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게임의 형태는 기존의 교사중심 학습 환경을 학생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활용되었으며, 설명을 위주로 하는 영어 학습 환경을 변화 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교육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게임 및 활동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영어 교과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임은 단순 게임 형태인 단어 맞추기, 문장 연결하기, 보드게임 등인데 이제는 그 범위를 넘어서 e-learning과 연계되어 실제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게임 환경(immersive worlds)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수업 실시간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받는 게임을 한다거나 (Socratic, PingPong 등) 학생들의 학습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주거나(Socratic, Band 등) 그림을 그려 공유(Sketchbook 등)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실시간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교류와 피드백은 학생과 교사 모두가 수업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학습 환경에서 사용하던 게임과 함께 다양한 방법의 테크놀로지 활용, 학생들에게 가상의 세계이지만 실제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적 온라인 게임 등을 포함하여 학습 활동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가상(Virtual) 온라인 게임을 통한 영어 학습

외국어로써 영어를 배우는 영어교육 환경의 한계를 최소화하고 혁신적인 학교-가정 연계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스마트 교육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 온라인 게임의 한 그룹인 ‘Serious Game’ 종류의 게임들은 기존의 온라인 게임을 교육 환경에 활용할 때 비판을 받았던 공격적·자극적 성향을 완전히 배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학생들은 정해진 주제나 형식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때 온라인으로 연결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가상공간에서 개인별이나 팀으로 움직이며 탐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언어 교육에 활용 한다면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EBS에 방과후 영어 학습을 운영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즉, 3D 가상세계(virtual environment)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차원의 영어 학습을 시도하는 것이다.

Freitas (2006)는 “Games are being used to support learning communities through considering games as metaphors—e.g., metaphors of the real world, or of fantasy worlds for experimentation and exploration (p. 25)” 이라고 하였다. 즉, 가상 세계를 통한 언어 학습은 학습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 해 볼 수 있기에 실제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3D 가상세계 체험 프로그램이란 컴퓨터 아바타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가상세계를 체험하고 교육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실제세계와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는 가상세계의 아바타 등을 활용한 온라인상의 역할 게임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학습자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활용하여 타인과 상호 작용하며, 여러 가지 탐구와 과업 등을 수행하면서 관련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유발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진일보된 온·오프라인 병합의 블렌디드 학습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창의성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6. 3.).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안)*.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a. 5. 19.).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b. 8. 31.).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교실*.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5.). *2012년 EBS 영어교육방송 활용 방과후 영어교육 지원 계획(안)*. 보도자료.

- 김영미, 황정희, 전수경. (2012).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적극적 활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방송공사.
- 김인숙, 변종임, 조순옥. (2010). 방과후 학교 참여의 영향. *열린교육연구*, 18(4), 246-270.
- 김정렬, 한희정, 임창근, 김홍래, 설양환, 문태혁, 박수정, 김성태, 양형욱, 박옥희, 김덕수, 마은경, 장상현. (2006). 사이버가정학습 학습주제별 큰 텍스트 유형적용 방안 연구: 영어과(연구보고 CR2006-5). 서울: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 김정민, 김혜민, 최은영, 채희중. (2014). 2013년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연구보고 TR2014-2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지향. (2008).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업무 효율성 제고. *방과후학교 정책 개발 연구 포럼 성과 자료집*(연구보고 RM 2008-1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 구자익, 김수동, 조덕주, 김연석. (2007).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연구(연구보고 CR 2007-2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 1. 29).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실천방안*. 보도자료.
- 송희심. (2012). 관학 협력을 통한 방과 후 원어민 영어교실의 운영 및 성과.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9(2), 109-141.
- 윤유진, 김홍원, 김정렬, 홍석준, 최윤진. (2008). 방과후 학교 외부강사 영어원어민 강사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연구(연구보고 CR2008-1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영주. (2012). 국가수준 영어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생 변인의 추이 분석.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9(2), 225-251.
- 정혜경. (2012) 학습부진 학생지도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전담 교사 배치와 방과후학교 중심으로(연구보고 RRI 2012-9).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혜옥, 박부남. (2014). 초등학교 수준별 영어학습 참여의 효과. *열린교육연구*, 22(1), 1-20.
- 최윤정. (2009).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 만족도 조사를 통한 방과후 수업 활성화 방안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한국교육방송공사. (2011. 7). *EBS English 방과후 영어교실로 학교 교육 강화*. 보도자료.
- 홍후조, 이승미, 민부자. (2005). *방과후 학교의 교육활동 만족도 분석 연구 교육 정책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 Belz, J. A. (2002). Social dimensions of telecollaborative language study.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6(1), 60-81. Retrieved December 10, 2011, from the World Wide Web: <http://llt.msu.edu/vol6num1/belz/>.
- Carman, J. M. (2002). *Blended learning design: Five key ingredients*, Retrieved November 1, 2012, from the World Wide Web: <http://mizanis.net/edu 3105/ artikel/Blended->

Learning-Design.pdf.

- Catchen, R. (2012). *Reach for the stars*. Retrieved December 20, 2012, from the World Wide Web: <http://ruthcatchen.wordpress.com/2012/07/10/reflection-on-arts-in-education-today/>
- Freitas, S. (2006). *Learning in immersive worlds: A review of game-based learning*. Bristol, UK: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JISC) E-Learning Programme. Retrieved December 13, 2012,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jisc.ac.uk/media/documents/programmes/elearninginnovation/gamingreport_v3.pdf
- Holec, H. (1981). *Autonomy and foreign language learning*. Oxford: Pergamon.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 and teachers*. New York: Association Press.
- O'Malley, J. M., & Pierce, L. V. (1996). *Authentic assessment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Practical approaches for teachers*. New York: Addison-Wesley.
- Thorne, S. L., & Payne, J. S. (2005). Evolutionary trajectories, Internet-mediated expression, and language education. *CALICO*, 22(3), 371-397.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Elementary/Secondary

김경석

경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Tel: (031) 249-9141

E-mail: kskim@kgu.ac.kr

이현주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영어교육전공)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Tel: (031) 249-9294

E-mail: bright1353@gmail.com

Received 15 June 2014

Revised 6 August 2014

Accepted 20 August 2014